

# 잊혀진 小説: Kate Chopin의 *The Awakening* (1899)

趙 成 圭

...A bird with a broken wing was beating the air above,  
reeling, fluttering, circling disabled down, down to the  
water.

—*The Awakening*, p. 189

美國文學에서 걸작의 목록에다가 잊혀진 小説이나 詩集을 追加하는 과업은 미국문학도의 업적중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업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 대한 一般讀者의 反應이 보잘것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잊혀졌던 걸작중에서 20세기에 발굴된 미국의 作品은 *Billy Budd*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Melville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약 33년쯤 후에 Raymond Weaver에 의해서 1924년에 出版되었다.<sup>1)</sup> 1921년에 Carl Van Doren은 그의 *The American Novel*에서 小數의 群少作家와 關係를 맺으면서, 겨우 몇 페이지만을 Melville에게 割愛하였으나, 1924년의 발굴과 더불어, *The American Novel*의 개정판에서는 Melville을 완전한 한 章으로 취급하였다. 이와같은 놀라운 再評價는 아마, 1920년대의 환멸과 반항적인 사람들이 英國과 美國에서도 *Moby Dick*의 作家에게 親近感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Billy Budd*도 대단히 一貫性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Harold Frederic의 *The Damnation of Theron Ware*(1896)의 경우는 좌절을 의미하는 예가 될 것이다. 1958년에 주목을 끌었고, 60년대에 널리 再版이 거듭되었고, 相當한 注目을 끌었다. 그러나 요즘의 結果는 美國文學講座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美國文學史에서의 位置도 不確實하며, 아마 앞으로 10년후엔 복잡하고 원숙한 이 小説은 발굴

1) F.O. Matthiessen, *American Renaissan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8, p. 500.

10년전과 같은 정도로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잊혀진 小説은 계속 발굴되고 있다. 주로 60년대에 女性解放의 여파로 널리 알려졌지만, *The Awakening*(1899)은 잊혀졌던 소설의 재발견의 목록에다 근년에 追加된 대표적인 作品인 듯하다. 이 소설은 1899년에 독자들에게 극적으로 受容되었다가, 부당하게도 소홀히 여겨져왔다. 그러다가 60년대에 주로, 새로운 女權伸張的 批評의 결과로서, 비평의 추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Kate Chopin은 女性權益의 초기 主唱者로서 예찬되게 된다.

Edmund Wilson은 「覺醒」을 “不貞을 다름에 있어서 D.H. Lawrence를 예견하였다”<sup>2)</sup>고 예찬했다. 사실상 이 소설은 Keneth Eble이 1956년에 소수의 청중들에게 소개될 때까지 완전히 소홀히 되었다. 그녀는 “이 소설은 미국판 *Madame Bovary*이다.”라고 평한다.<sup>3)</sup> 이와 같은 指稱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소설의 主人公이 유사하며 숨막힌 중류 계층의 婚外情事를 찾으려고 하는 유부녀를 記述한 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보다 학문적인 두명의 文學史家는 Chopin의 공적을 認定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The Ferment of Realism* (1965)에서 Warner Berthoff는 이 소설을 특출한 소설이라고 부르고, *The American 1890's* (1966)에서 Larger Ziff는 「覺醒」을 일류 小説이라고 結論을 맺고 있다. Ziff는 이 책에 書評을 쓰면서, Stanley Kauffman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소설을 주요 미국소설의 계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논한다.<sup>4)</sup> Chopin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비평가들은 그들의 文學的인 背景을 엿보이게 하면서, 다채로운 평을 가하고 있다. Keneth Eble은 희랍 희곡 특히 *Hippolytus*에게서 유사점을 찾고, Wilson은 이 소설이 D.H. Lawrence를 암시하고, Berthoff은 *Anna Karenina*를, 또한 Ziff와 Kauffman은 *Madame Bovary*를 암시한다고들 한다.

위의 評들에서 비추어 보아도 「覺醒」은 再發見 되었고, 그것의 眞價를

2) Edmund Wilson, *Patriotic Go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 590.

3) “A Forgotten Novel,” *Western Humanities Review*, I (Summer, 1956), 261-269. 이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The Awakening* (New York, Capricorn, 1964), pp. vii-viii에 게재되었음.

4) *The New Republic*, December, 1966.

뒷바침 하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소설을 위한 주장이 팽창하게 되었다. 이 論文의 目的은 이러한 주장을 직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비평적 관점을 보고하고, 이 소설의 一貫性의 결여를 지적하려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 이와같은 비평적 논의를 공개하면서, 특히 「覺醒」의 結末을 熟考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結末은 主人公의 탁월한 성격묘사를 저해하며, 이 소설의 再發見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작품의 결작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背景은 뉴오린즈에서 부유한 크리올(Creoles)들의 피서지이다. 그 構成은 경쾌하며 젊은 女人 Edna Pontellier는 육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두 자녀를 낳았으나,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女性으로서의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賢母良妻(motherwoman)로서의 자신의 役割만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본질적인 自我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 젊은 Robert Lebrun에 대한 사랑에 눈을 떠 희망을 건다. 그러나 그들의 關係가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Robert는 멕시코로 떠난다. 한편, Robert 보다도 분별력이 있고, 체험이 많은 Arobin의 접근을 수락하고, 그 여자는 남편의 집을 나간다.

이때부터 그녀의 肉體的要求는 절실하게 되어 Mrs. Pontellier와 Arobin의 관계는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성적인 특색을 나타낸다. Edna는 Arobin을 사랑하는 척도 하지 않지만, 그의 대담성은 그녀의 覺醒된 官能을 자극하여, 그녀는 마음속에 참을 수 없이 격동된 動物性에 빠지고 만다.

...Alcée Arobin was absolutely nothing to her. Yet his presence, his manners, the warmth of his glances, and above all the touch of his lips upon her hand had acted like a narcotic upon her.<sup>5)</sup>

그들의 첫번째 키스는 그녀의 본성이 진정으로 반응을 보인 최초의 것이었다.

5) Kate Chopin, *The Awakening*, Bard Books/Published by Avon, New York, 1972, p. 129. 다음부터 인용되는 *The Awakening*에서의 引用文은 作品名 다음에 페이지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It was the first kiss of her life to which her nature had really responded. It was a flaming torch that kindled desire. (*The Awakening*, p. 139)

Robert가 멕시코에서 돌아왔을 때, Edna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를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낭만적이고, 열렬한 憧憬을 만족시키려하지만, Robert는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들의 절정적인 장면은 Adèle의 분만때문에 중단되었고, 그녀가 돌아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발견한다. "I love you, good-by—because I love you". 몹시 절망한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싹튼 피서지로 가서, 아무런 의식적인 의도를 남기지 않은 채 바다물로 걸어나가 죽는다.

Wilson, Ebbble등과 같은 비평가들은, 위의 요약에서 보인 바와 같은 Edna의 이야기를 통해 Kate Chopin은 이야기를 인상적인 기교로서 전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세기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作家의 특별한 간청이나 교훈적인 著者評을 하기위해 筆者 侵入이라는 特典을 남용하지 않고, Edna의 覺醒의 요지를 강화시키는 육감적인 散文과 超然한 語調를 노련하게 結合시키고 있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點들은 Chopin의 탁월한 기교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Kate Chopin의 이야기의 核心은 Edna Pontellier의 성격묘사에 있다. 終章(39章)을 제외하고는 38章까지 성격묘사가 훌륭하다. 왜냐하면 Mrs. Chopin은 Edna의 열렬한 自我의 出現을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Edna의 이러한 自我란 社會的 習慣, 인습적 道德律 또는 家庭的인 義務때문에 부정될 수 없는 欲求物들을 지닌 自我이다.

이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을 Edna의 성격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小說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그녀의 安定이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作品속에 나타난 그녀의 배경에 관해서 우리는 약간의 암시를 받을 수 있다. 그녀는 모호한 종교를 가진 가정의 둘째딸이다. 아버지는 平日의 죄를 主日날의 종교적 헌신으로 속죄하는 노신사이며, 그의 승마용 말은 넓은 켄터키의 농토를 즐다름쳤다. 그러므로 이 家族은 두개의 얼굴을 지녔다. 平日에는 경마와 토지찬탈로서 죄를 짓고 주 일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속죄한다.

딸들의 성격묘사는 이와같은 가족적 모순을 反映한다. 장녀 마가렛트

는 희석된 모든 장로교의 교리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아마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녀가 어머니노릇을 한 탓인지 女主人답고 위엄이 있다. 마가렛트는 지나치게 感情을 나타내지 않는, 현실적인 딸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처럼, Edna에게 일차적인 mother figure인 것이다. 반대로 자넬는 두 극단적인 사람 사이에 위치하여, 이 집안의 二重的 基準과는 상관없이 편안히 살면서, 양 극단을 수용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Edna는 自己反省의 기미도 없이, 소설이 시작하였을 때, 희미한 불만을 막연하게 의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중적인 기준을 지닌 여자였다.

At a very early period she had apprehended instinctively the dual life—that outward existence which conforms, the inward life which questions. (*The Awakening*, p. 26)

이 불만은 이렇다할 理由없이 눈물을 흘리는 불만이다. 그녀의 좌절감이 심해지자, 그녀의 동경심은 Robert에게 固定되고, 이런 現象때문에 나타난 첫번째 結果는 자기 남편의 意思에 까닭없이 완강히 抵抗하는 것이다. 이 男便의 存在는, 그녀의 잠재적인 自我의 表現을 방해하고 자기의 부인으로서의 옹지못한 役割을 그녀에게 상기시킬 따름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째서 男便의 意思에 順應했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늦게 돌아온 남편이 잠들자, Edna는 잠이 깨어 느끼는 억압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 indescribable oppression, which seemed to generate in some unfamiliar part of her consciousness, filled her whole being with a vague consciousness. (*The Awakening*, p. 143)

때로는 어째서 남편에게 굴복하였었는지 그 까닭을 알지도 못한다. 또한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의 명령에 굴복한 적이 있는지 생각도 한다. 현모양처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人間으로서의 자기의 位置를 깨닫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보통여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이상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Mrs. Pontellier was beginning to realize her position in the universe as a human being, and to recognize her relations as an individual to the world within and about her. This may seem like a ponderous weight of wisdom to descend upon the soul of a young woman of twenty-eight—perhaps more wisdom than the Holy Ghost is usually pleased to vouchsafe to any woman. (*The Awakening*, p. 25)

因襲的인 義務에 대한 Edna의 反抗은 자기남편을 떠나 別居하여 자기의 집을 이룩하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최초로 그 절정을 이룬다. 외모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 하며, 자기의 子息들에 대한 감상적인 거리감을 거부한다.

I would give up the unessential; I would give my money, I would give my life for my children; but I wouldn't give myself. I can't make it more clear; it's only something which I am beginning to comprehend, which is revealing itself to me. (*The Awakening*, p. 49)

얼마 후에는 自我의 斷定은 그녀의 일상의 행위의 근본적인 것으로, 그녀의 행동의 지침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녀는 자신외의 딴 사람에게 소속되지 않으려고 결심한다. 심지어는 그녀와 Robert가 상호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도, 낭만적인 감상보다는 그녀의 獨立的인 自我를 보호하고 표현하는 결의가 앞서게 된다.

I am no longer one of Mr. Pontellier's possessions to dispose of or not. I give myself where I choose. If he were to say, "Here, Robert, take her and be happy; she is yours," I should laugh at you both. (*The Awakening*, p. 178)

自己男便이 “여보게 로벨트, 이 여자와 가서 행복하게. 이 여자는 자네 것이니까”라고 말하면 Edna는 자기의 自由意思를 인정받지 못하고 所有物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니, 두 남자를 보고 조소하겠다는 自己決意를 宣言한다.

Edna에게는 불안하고, 심지어는 自己를 소외시키는 무자비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자비는 자기완성을 充足시키려는 열렬한 충동을 직접 반영시키는 것이므로 道德的인 범주를 벗어나는 무자비성을 나타낸다. 바로 이 점이 Kate Chopin의 성격묘사의 위대한 성공이다. 즉 다 시말해서 우리는 Edna를 강요하는 가차없는 힘을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혀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차없는 힘을 우리가 절실히 공감하고, 집요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Edna가 “覺醒”하는 것은 지극히 自然스러운 하나의 사실이며, 個人과 社會에 대한 그와 같은 覺醒의 함축적인 뜻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바다의 이미지와 그녀의 욕망이 비유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된다.

The voice of the sea is seductive; never ceasing, whispering, clamoring, murmuring, inviting the soul to wander for a spell in abysses of solitude; to lose itself in mazes of inward contemplation. The voice of the sea speaks to the soul. The touch of the sea is sensuous, enfolding the body in its soft, close embrace. (*The Awakening*, p. 25)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귀질이 반복될 때마다 바다는 성적욕구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바다의 목소리는 영혼에게 말하고, 바다의 감촉은 육감적이어서 그 부드럽고 세찬 포용으로 육체를 감싼다.” 그녀는 만을 비치는 달빛을 볼 수 있고, 무거운 남풍의 부드럽고, 센바람을 느낄 수 있다.

Edna의 성적욕구를 은유로서 능숙하게 묘사한 것에 못지 않을 정도로, Mrs. Chopin은 Edna의 男便을 능숙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Mr. Pontellier는 Edna만치 현저한 인물은 아니다. 남편의 묘사에 있어서 重要的 點은 Mr. Pontellier가 그의 아내의 반항에 대한 그럴듯한 口實이나 正當性을 제공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가망성이 없는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좋은 성질과 의도를 지녔고,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사업에서도 성공했고, 그의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남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는 자기 아내를 일종의 소유물로 간주한다고 Edna는 의식하고 있다.

“You are burned beyond recognition,” he added, looking at his wife as one looks at a valuable piece of personal property which has suffered some damage. (*The Awakening*, p.7)

Mr. Pontellier는 좀 지나치게 빠기는 듯 하긴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그리고 그녀의 이상한 기분이 사라질 것을 바라면서, 잠시 Edna의 변덕을 도외시하라는 家族醫의 충고를 받아드릴 만한 동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도 있고, 동정심도 이해심도 있지만 때때로 성급하게 된다. 또한 그는 가정생활이 어찌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와 아이들이 그의 부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의 당혹은 전연 희극적이 아니고, 독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哀傷을 유발시킨다. 또한 그 점이 이 小說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한다. 가정이 오직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광란”을 동경하는 아내는 사소한 試鍊은 아닐 것이다.

Mr. Pontellier의 성격과 상황은 소설이 시작하였을 때 한 장면에서 곧잘 묘사되어 있다. 하루의 수영을 마치고, 친구들과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보낸 다음, Edna는 일찍 파리를 떠난다. 남편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과는 달리 아내가 침실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hammock(햄목)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추위와 모기를 아내에게 경고하고 집에 들기를 독촉한다. 그들의 결혼관계에서 비상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만치, 그녀가 무뚝뚝하게 거절하므로, 그는 더 이상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 머문다.

He opened a bottle of wine, of which he kept a small and select supply in a buffet of his own. He drank a glass of wine and went out on the gallery and offered a glass to his wife. She did not wish any. He drew up the rocker, hoisted his slippered feet on the rail, and proceeded to smoke a cigar. He smoked two cigars; then he went inside and drank another glass of wine. Mrs. Pontellier again declined to accept a glass when it was offered to her. Mr. Pontellier



once more seated himself with elevated feet, and after a reasonable interval of time smoked some more cigars. (*The Awakening*, p.53)

이런식으로 여러 시간동안 부부로서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실제의 거리는 몇자밖에 되지 않으나 그들의 각각의 世界는 거리가 멀다. Edna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그에게 집안으로 들어 가겠느냐고 부드럽게 물었으나, 그는 씨가를 다 피운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말한다. Edna에게 “覺醒”과 새로운 반응이 나타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종의 자제이지만 그와 같은 최선의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다.

남편이 한 단계에서 결핍되어 있으니, 그는 그녀에게 어느 단계에서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수 개월내에 그녀는 남편의 집을 떠나 애인을 찾고, 그녀의 意識에서 그가 벗어나게 되니 이 소설에서 부터 그는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Mr. Pontellier만은 아니다. 드디어 이 소설의 모든 남자들은 Edna에게 呼應할 수 없다. 바로 이 點은 이 소설의 結末을 고찰할 때 우리가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의 結末을 다루기 전에 Kate Chopin이 이 소설의 짜임새속에서 밀도 있게 제시하고 있는 Edna와 그녀의 남편 Léonce와의 背景의 對照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부의 文化的인 次元의 差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dna는 “진전한 옛 장노교血統”속에서 成長했으며, 자기 아버지가 장노교의 예배를 이끌던 “우울감”을 아직도 기억한다. 다시 말해서 Edna는 결혼 때문에 접촉하게 된 불란서 系의 크리올 (Creoles)들의 “淑女風”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She was not accustomed to an outward and spoken expression of affection, either in herself or in others. (*The Awakening*, p.31)

이와같은 숙녀풍의 결여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올 女人들은 정숙하고, 그들의 남편은 질투심이 없지만, 그 女人들은 Edna가 가장 친숙한 것으로 교육받아온 문제들을 쉽게 태연히 말들을 한다. 그러나 Mrs. Pontellier는 자기의 속을 터놓는 女人이 아니다.

Mrs. Pontellier was not a woman given to confidences, a charac-

teristic hitherto contrary to her nature. Even as a child she had lived her own small life all within herself. At a very early period she had apprehended instinctively the dual life—that outward existence which conforms, the inward life which questions. (*The Awakening*, p. 26)

그러나 일단 Edna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게 되면 그녀의 행동은 켄터키의 장노교는 물론 크리올인들이 수락하지 못하는 限度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Kate Chopin은 Edna의 딜레마에 대한 文化的인 說明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性에 대한 文化的인 態度的 對照는 Edna의 고립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또한 그녀의 자아 充足的 탐색이 어렵다는 것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느 환경에서도 진정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그녀가 自己의 本質的인 天性이라고 느끼게 된 것을 表現하지 못하게 하는 基準을 제시한다. 現代讀者들에게는 크리올인들의 態度가 Kate Chopin이 묘사하다시피 더욱 건전한 태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크리올의 태도는 켄터키의 淸敎主義가 Edna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解決策을 주지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년에 「覺醒」에 바쳐진 찬사에 우리는 쉽게 동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찬사에 동조할 수 있는 限度는 結論에 도달 되기 전까지의 程度에서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이 小說의 結論(結末)은 근본적으로 도피적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 비평가들은 總體로서의 小說에 대해서 肯定的인 것과 마찬가지로 結末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Eumund Wilson은 이 소설의 結말은 “이 소설의 餘他的 부분과 똑같은 육감적인 美”를 지니고 있다고, 심미적인 면에서만 말했다. 다른 비평가들은 그들의 찬사가 심미적인 한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Berthoff는 “Edna의 자살을 心理的으로, 육감적으로 확신을 준다”고 말했다. Rauffman은 이 結末을 構成上의 考案이나 逃避없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며, Ziff는 좀더 자세하게 心理的인 一貫性을 主張하여 논쟁을 벌이고, 함축적으로 자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Eble은 Mrs. Chopin이 構造를 完全히 支配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아마도 結末이 이 小說과 一貫性이 있다고 主張한다. 이와같은 批評的인 예찬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結末이 一貫性이 없어 보이는 點을 좀 후에 지적하겠다.

물론 주인공 Edna의 심리속에서 죽음의 擬人과 연애의 신에서 유추되는 “죽음의 본능”과 “성적사랑” 즉 Thanatos와 Eros의 작용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용은 Edna의 존재속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Cynthia Griffin Wolff의 논문의<sup>6)</sup> 타당성을 認定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소설의 結末의 一貫性의 결여를 지적하기에 앞서, 혹시 그와 같은 心理的인 움직임을 認定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이러한 심리적인 움직임을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 소설속에 가장 긴 에피소드중의 하나는 정찬 파아티이다. 식탁에 관한 긴 묘사도 있고, 호화로운 의자, 꽃, 촛불,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Edna의 의상이 묘사되어 있고, 감각을 각성시키는 모든 것이 섬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感覺的 道樂은 Edna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손님들 한가운데서 그녀는 고질적인 권태가 엄습하는 것만을 느낀다. 이와같은 울적함은 그녀를 언제나 엄습하던 절망이었다. 아마도 Edna는 이런 절망을 Robert의 不在와 연관시키려고 할 것이다.

There came over her the acute longing which always summoned into her spiritual vision the presence of the beloved one, overpowering her at once with a sence of the unattainable. (*The Awakening*, p.)

즉 그녀의 “정신적 비전”속에 “언제나”존재하는 막연하고 집요한 이미지는 “戀人の 存在”이다. 이렇게 묘사된 동경심은 불멸의 동경이며, 그녀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다시피, “얻을 수 없는”것이다. 그녀의 머리속의 비전은 Robert에 관한 비전이겠지만, 그것은 Edna가 소녀 시절에 동경하던 기병장교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혹은 그녀의 막연한 동경심을 충족시켜줄 어떠한 비전이나 이미지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Edna의 동경심의 漠然한 이와같은 특징은 불길한 여운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충족되기 위해서 헛되게 기대되고 있는 “광대한 공허감”이 점점 두드러짐에 따라 한층 더 험악하게 느껴지는 여운이다.

음식물을 混入시키는 Edna의 沒頭는 그녀의 외부적인 것을 混入하려

6) Cynthia Griffin Wolff, “Thanatos and Eros: Kate Chopin’s *The Awakening*,” *American Quarterly*, Vol. 25, No. 4, October, 1973, pp. 449-71 참조.

는, 보다 더 일반적인 관심의 일면을 보이게 된다. 일부의 사람들이 본質적으로 입(口腔)의 관심을 고집한다는 Freud의 假說은 Edna의 문제를 한층 더 명확하게 밝혀 주기도 한다.

Originally the ego includes everything, later it separates off an extended world from itself. Our present ego feeling is, therefore only a shrunken residence of much more inclusive—indeed, an all-embracing—feeling which corresponded to a more intimate bond between the ego and the world about it. If we may assume that there are many people in whose mental life this primary ego-feeling has persisted to a greater or less degree, it would exist in them side by side with the narrower and more sharply demarcated ego-feeling of maturity, like a kind of counter past to it. In that case, the ideation contents appropriate to it would be precisely those of limitlessness and of a bond with the universe...the “oceanic” feeling.<sup>7)</sup>

심리적으로 완숙한 개인은 外部世界와의 무한히 융합하려는 이와같은 “oral desires”를 어느 정도 충족하였다. 자기에게 자양분을 주는 인물과 동일체를 이루려는 의식은 더욱 복잡한 것들로 움직이기에 충분한 자양분을 주었다. 그러나 成長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다. 무한한 것과 유대를 가짐으로써 완전한 充足을 하려는 Edna의 환상은 대부분의 인간의 공통심리로서, 그 환상이야말로 이 作品에다 소설적인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타협적인 힘을 내면서 이와같은 “primary ego feeling”이 집요하게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口腔的 充足”을 찾으려는 유혹은 불가항력적이고, 자기파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설의 결말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우며, 심리적인 가치마저 따라서 있는 듯이 보인다.

사실상, 이 소설에는 도처에서, Edna의 근본적인 동경심은 위에서 본 Freud의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상하게도 이 「覺醒」의 傳達者는 充足하려는 동경심과 자기의 정체를 정의하려는 Edna의

7)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71), 21:68.

심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But the beginning of things, of a world especially, is necessarily vague, tangled, chaotic, and exceedingly disturbing. How few of us ever emerge from such a beginning! How many souls perish in its tumult!

The voice of the sea is seductive; never ceasing, whispering, clamoring, murmuring, inviting the soul to wander for a spell in abysses of solitude; to lose itself in mazes of inward contemplation. The voice of the sea speaks to the soul. The touch of the sea is sensuous, enfolding the body in its soft, close embrace. (*The Awakening*, p. 25)

궁극적으로, Edna가 직면한 문제는 악몽의 순환이다. 그녀는 자기 마음속의 “自我의 正體”를 숨김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능적 충족에 대한 모든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그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Edna는 자기주변의 다른 사람들——일반적인 크리올인들과 특히 Adèle 같은 인물들——을 본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여, 아무런 심적인 갈등도 없이 그러한 탐닉을 향락할 수 있다. Edna의 숨겨진 自我는 의식회복과 자양분을 동경하고, 특히 Grand Isle의 희롱적인 분위기에서, Edna는 그러한 自我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하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일단 그와같은 自我가 해방되지만, 그녀의 내재적인 자아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의 내성은 “orally” 파괴적인 자아로서, 外部世界와의 完全한 융화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무한한 공허만을 느낀다. 그리고 이와같은 총체적 융화는 자아의 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Freud의 이와같은 “oceanic longing”은 이 소설의 결말에서 보는 Edna의 자살을 뒷바침하는 듯이 보인다.

「覺醒」의 結末이 그 앞의 部分과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의 主張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結末의 一貫性의 不在처럼 보이는 點을 지적하겠다.

Robert의 작별의 쪽지를 읽고난 다음, Edna는 자기집에서 한잠도 자

지 못하고 밤을 새운다. 그녀는 이제 철이 지난 피서지까지 배를 타고 간다. 바로 이 피서지는 이 小説에서 그녀가 Robert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곳이다. 그녀는 피서지의 支配人에게 房 하나를 마련하게 하고, 저녁에 정찬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수영하기로 결정하고 수건을 몇 개 빌린다. 자살이 그녀의 意圖라는 암시가 전혀 없다. 그녀가 이렇다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해변으로 갈 때, 독자들은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녀의 생각을 알게 된다.

“Today it is Arobin, tomorrow it will be someone else.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it doesn't matter about Léonce Pontellier—but Raoul and Etienne!” She understood now clearly what she had meant long ago when she said to Adèle Ratignolle that she would give up the unessential, but she would never sacrifice herself for her children. (*The Awakening*, p. 188)

위의 引用文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녀가 두려워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戀人들이 變하는 것이며, 그런 結果가 未來에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다. 이런 우울한 상태에서, Robert만을 동경하며, 그녀의 아이들은 자기의 동경심을 좌절시키는 적수들처럼 나타난다. 아이들은 Edna의 여성동안 그녀의 영혼을 노예로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적대자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The children appeared before her like antagonists who had overcome her, who had overpowered and sought to drag her into the soul's slavery for the rest of her days. But she knew a way to elude them. She was not thinking of these things when she walked down to the beach. (*The Awakening*, p. 189)

그러나 해변으로 갈 때에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한 이러한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영복을 입지 않기로 결심하며, 바다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가 바다속으로 점점 더 나아갈 때, 팔과 다리는 힘이 빠지고, 자기 남편과 어린애 생각을 다시 한다. (그들이 자기의 몸과 정신을 전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必要가 없었다.) 또한 Robert 생각

을 한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몇 행에서 켄터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She looked into the distance, and the old terror flamed up for an instant, then sank again. Edna heard her father's voice and her sister Margaret's. She heard the barking of an old dog that was chained to the sycamore tree. The spurs of the cavalry officer clanged as he walked across the porch. There was the hum of bees, and the musky odor pinks filled the air. (*The Awakening*, p. 190)

그렇다면 이와같은 結末이 옳지 못한 點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ending의 가장 중요한 결점은 일관성을 결여한 성격묘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결말은 그보다 이전에 몹시 印象的으로 전개된 성격묘사와는 전혀 다른 Edna를 독자가 수락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까닭이다. 小說全體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Edna의 성격의 특징은 그녀의 강인한 意志였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나아가겠다는 무자비한 決意였다. 그녀는 자기의 思考와 行爲로서 因襲的 道德律, 社會的 慣習, 그리고 男便과 어린애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라는 制約을 명백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5페이지에서, Mrs. Chopin은 Robert를 상실함으로써 완전히 패배한 Edna를 믿도록 강요한다. 換言하면, 熱熱한 삶에 覺醒하고도 거의 아무 생각없이 죽음을 擇한 한 女人의 逆說을 믿도록 強要하는 셈이다. 좌절상태에서 몹시 많은 것을 극복했으면서도 Edna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에 의해서 파멸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結末에서 動機로서 그녀에게 귀속시키려는 이유와 느낌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Arobin과의 짧은 연애는 장차 연속적으로 연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立證하지도 않는다. Arobin과의 關係는 다만 그 女人의 삶에서 결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녀는 慣例와 家族의 유대관계에 오래동안 무관심했으므로, 그녀는 Arobin보다 덜 값싼, 그리고 Robert보다도 덜 신중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것은 Edna가 아이들에게 전에는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관심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結末이 올 때까지 줄곧 自身과 자신의 必要物에 대해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강하게

대처하였지만, Edna는 갑자기 붕괴되고 說明으로 독자들이 얻게되는 것은 그 이전에 독자가 목격해온 것과 一致하지 않는다. 自己의 男便에게서 떠날 수 있었고, 어린애들을 도의시하고, 자신의 집을 이룩하고, 자신의 그림으로써 돈도 벌고, Arobin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연인을 추구할 수 있었던 Edna는 Robert의 사양의 쪽지만은 견디지 못한다.

이와 같은 모순은 이 結末의 모순을 의미한다. 또한 Mrs. Chopin은 자기가 쓰고 있던 소설에 맞지않는 다른 結論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he Awakening*의 이 結末은 이 小說보다도 더욱 慣例의이고, 훨씬 덜 흥미있는 어떤 소설에 대한 결말이다.

더욱 特定的으로 말하면, 이 結末은 女性의 性的욕구를 미묘하게 心理的으로 다룬 소설을 위한 결말이 아니라, 통속적인 感傷小說에 어울리는 결말이다. 만약에 結末 以前의 部分이 感傷的이나 낭만적인 수준에만 존재한다면, Edna의 자살은 慣例的으로 適當하며 수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 女人이 자기의 절개를 버렸으니, 죽음이 그 結果를 뒤따른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같은 소설에서는 Robert는 그녀의 唯一한 사랑일 것이고, 이 위대한 낭만적인 熱情은 종말에 파멸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 不當한 結末에도 불구하고, 「覺醒」이라는 소설은 그와같은 感傷的인 小說이 아니다.

사실상 因襲的 感傷小說에 대한 「覺醒」의 관계는 마지막 結論의 部分까지 전혀 그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Kate Chopin은 유희과 보복에 관심이 없었고, 女人의 熱情의 성질과 그 성질이 自我, 結婚, 社會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에 가서 작가 Chopin은 이와같이 복잡한 문제를 具顯한 人物을 실망과 부정의 사랑때문에 죽는 인물로 轉換하였다. 換言하면, 하나의 복잡한 心理小說이 통속적인 感傷的 小說로 전환되었다.

이와같은 불행한 變化를 한 理由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불행한 變化는 Kate Chopin의 단편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와같은 變化를 사용함으로써 작가는 哀傷과 詩的 正義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애상이란 자기의 感傷的인 讀者를 즐겁게 하기 위한 哀傷이고, Kate Chopin의 道德的인 讀者를 만족시키려는 詩的 正義이다. 感傷的이고 哀傷的인 方向으로의 轉換은 “상처입은 날개를 가진 새”의 이미지에 함축되어있다.



...All along the white beach, up and down, there was no living thing in sight. A bird with a broken wing was beating the air above, reeling, fluttering, circling disabled down, down to the water. (*The Awakening*, p. 189)

위에서 보는 날개를 상처입은 새(39章)의 이미지가 나오기 전 27章에 Edna의 Confidante는, 힘이 부족하지만, 평범한 水準 以上으로 傳統과 편견을 초월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암시하는 새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Well, for instance, when I [Mrs. Pontellier] left her [Mademoiselle Reisz] today, she put her arms around me and felt my shoulder blades, to see if my wings were strong, she said. ‘the bird that would soar above the level plain of tradition and prejudice must have strong wings. It is a sad spectacle to see the weaklings bruised, exhausted, fluttering back to earth.’” (*The Awakening*, p. 138)

이러한 상처입은 새의 이미지가 반복될 때, 독자는 틀림없이 Edna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동일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물론 Edna는 그와같은 人物은 아니다. Edna를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傳統과 偏見과 같은 환경의 壓力은 아니다. Edna를 파멸시킨 壓力이 있다면, 그것은 感傷小說의 傳統의 壓力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女性의 運命은 고되도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女性의 연민을 나타내는 哀傷이다.

結末에 대한 道德的 說明은 마지막 몇 페이지에 명백히 나타난다. Edna는 당시의 인습적 성적 도덕율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고, 1899년의 일반 독자들은, 그녀의 罪는 고통받다 죽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Chopin은 결말 이전에 보이던 Edna의 해방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결말에 와서 당시의 독자의 취향에 굴복한 듯하다.